

[보도자료] 쿠팡,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MOU' 체결

2021. 6. 7.



- 쿠팡의 물류 관련 IT 기술을 관세청에 접목해 빠른 해외직구 통관과 사전 위해물품 차단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 설계·구축 및 협의체 구성
- 로켓직구의 배송 속도 높이면서 안정적인 마켓플레이스 만들 것

2021. 06. 07 서울 – 쿠팡은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쿠팡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 물류 제도와 법령, 전산 시스템 설계·구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더 신속히 제공해 해외직구의 통관 속도를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7일 오후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임재현 관세청장, 김기동 전자상거래통관과장, 최영환 연구개발장비팀장,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문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MOU는 온라인 개인무역의 규모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통관속도를 높이고, 국민안전 위해물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국가 전자상거래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쿠팡의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거래시스템과 관세청이 구축할 국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가칭)이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연결되도록 설계 및 구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 물류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래정보를 한 단계 빨리 관세청에 제공해 로켓직구의 배송 속도를 높이고, 국가 전자상거래 통관시스템과 충돌하지 않는 안정적이며 신뢰도를 갖춘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밀한 배송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거래취소물품의 해외반송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해외 판매자도 유리한 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쿠팡과 관세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긴밀한 민-관 협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할 제도개편 및 시스템설계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소비자 지향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통관 물류체계가 설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는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쿠팡은 물류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스와 IT기술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왼쪽)과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